

30과 기도하신 예수님 - 신용철 목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진리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또 저희들을 한 자리에 모아 주시고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음 주에 있을 초등부 학생들을 위한 공과를 같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된 우리가 먼저 바르게 분별을 하고

또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해야 될 쥬야 될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학생들을 대할 때 주님 주신 사랑과 말씀과 은혜로써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을 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웁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짧으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 하시더니

시몬과 밋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기까지 읽니다.

날씨가 좀 좋지 않네요?

가뭄이 있을 때는 가뭄이 있어서 좀 어렵고 또 장마가 있으면 장마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 공과가 기도하신 예수님 30과 공과인데요

그 30과 공과 그 내용을 펼쳐보실래요?

먼저 그 잘못 된 부분이 좀 있는데 30과 공과 기도하신 예수님 내용 중에 오늘의 공부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나요? 말씀을 찾아 읽고 알맞은 그림과 연결해보세요.

그 내용 중에 누가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2절까지

자 이중에 마태복음 1장 35절은 없죠?

마태복음 1장을 찾으시면 35절 어디 갔지? 없을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잘못 오기 한겁니다.

먼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과를 넣은 이유는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이 공과를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공과를 넣은 거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니까 저는 일반적인 내용을 쪽 말씀 드릴거고

학년에 맞도록 여러 선생님들이 적당한 예화나 내용은 첨가해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얘기할 때 먼저는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또 하나는 우리의 본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처리해주시고 우리 대신 질고를 맡으심으로 우리를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이십니다.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목사님이 성경과 약간 다르게 얘기하셔서 성경구절 찾아서 넣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죠?

실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을 능히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증인으로 계시고 의인으로 보증인으로 지금도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의 대표고 실제로 삶으로써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모델이시죠.

모델.

그래서 아이들은 모델이라는 그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의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본이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 실제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씻기시는 이유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은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써 주님을 따라오는 본을 보이셨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그 고난의 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가운데서 선을 행하심으로 묵묵히 참으시는 그 모습이 그 따라오게 하기 위한 그 하나의 본으로써 보여주신거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이셨죠.

발을 씻기시는 본, 온유와 겸손의 본, 복음을 전하시는 본, 또 성실하신 어떤 본, 충성 된 어떤 본, 구별 된 삶, 거룩의 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본, 또 고난의 본, 그 본을 많이 보여 주셨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예수님 공과 제목이 그런데요

예수님 참 바쁘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때에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바쁘게 3년 반 공적인 생애를 하실 때 실제로 부지런히 온 갈릴리에 또 예루살렘에도 여러차례 올라가셨죠.

유대와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시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바쁘신 중에도 예수님은 꾸준히 또 기도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을까?

기도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으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그것 참 중요한 문제죠?

언제? 또 무엇을 위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 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내용은 예수님의 하루의 생활을 쭉 전체를 이제 말씀해 놓으셨는데,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낮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꼭 말씀해 놓으셨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와서 소란이 일어났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는 그 내용 뿐 아니라

그 29절부터 31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바로 베드로의 집에 가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낮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얘기하시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저 물어 해질 때 해질 때 이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얘기하셨는데

그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셨는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늦은 저녁시간까지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셨을 겁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 새벽은 유대인의 그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그 고사이를 말합니다.

그 단어자체가.

그리고 그 미명에 그 말은 해뜨기 전이라는 말이죠

새벽 3시부터 6시 고사이 해뜨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주무셨는데 제자들 있는데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한적한 곳을 또 찾으셔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쁜 일정을 또 보내시고 다음날은 좀 폭 쉬셔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주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을 찾아보죠.

마가복음 6장.

여기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돼 있고

마가복음 6장 46절부터 47절까지 45절부터 제가 읽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리므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직후에 이미 꽤 시간이 지났죠?

이미 오병이어 제자들의 거기 모인사람들에게 오천 명에게 음식을 먹일 때 이미 날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치시고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또 건너 벳새다로 급히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혼자 가셨다고 돼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기도하러 산으로 간 이 시간이 이제 해가 진 이후잖아요?

그렇죠? 밤에.

그리고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특별히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분처럼 꼭 산기도가 효험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이고

또 마가복음 14장을 보죠.

마가복음 14장 32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이 이렇게 세군데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6장, 14장.

그래서 제가 3군데를 찾은 겁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겿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거셔서 나와서 겿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이것은 아주 늦은 밤이죠.

밤중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또 해진 후에 또 밤중에 예수님은 자주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경우에 공통점은 혼자 기도하셨다는 거죠.

혼자.

마가복음 1장에도, 마가복음 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혼자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한적한 곳.

그렇죠 특별히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제자들을 동행하셨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특별히 더 가까이 두셨지만 세 제자가 있는데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얼마동안 조금 거리를 두시고 혼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이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이 나는 대로 아주 그 바쁜 중에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혹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보세요 새벽에도 보시면 참 그 일부러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밤중에도 늦게까지 기도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이것 참 중요하죠?

언제 기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냐?

마가복음 1장을 보죠.

마가복음 1장 다시 넘깁니다.

35절부터 보시면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와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는 내용은 안 나와 있죠?

무엇을 뭐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는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의 행적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추정은 해볼 수 있겠죠?

아마 그 전날 밤까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선생님 많은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날 기도하셨겠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전도할 어떤 그 동네, 또 전도하신 그 그날 만날 어떤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이제 전도할 사람 또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먼저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만나면 또 지혜도 주시고 더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밖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됐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잘 못 읽으셨는데 그냥 성경대로 적었어요)그래서 열둘을 꼭 택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기 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신 이후에 날이 밝자마자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열두제자를 택하신 그 이후에 하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날은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열두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겠죠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하시고 이제 그 복음을 완성 된 이후에 그 복음을 이 만천하에 전할 자신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특별히 그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는요 밤이 맞도록 아주 늦은 밤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일꾼 그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께서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그 그다

음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일곱 개로 오천 명 또 사천 명을 먹인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은 특별히 축사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축사가 뭐예요?

축사라는 말은 그것도 이제 기도입니다.

특별히 감사기도를 가르쳐요

성경에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찾아보죠.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특별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특별히 축사하셨다.

또 마태복음 15장 36도 보겠습니다. 36절에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흠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여기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서 사천 명을 먹이신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도 여기도 기도하셨어요.

여기 축사 특별히 하늘을 우러러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축사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감사 기도일까요?

잠시 후에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칠병이어를 통해서 오천 명 또 사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미리 감사 하신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죠

미리 감사하신 그 기도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도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또 축사하셨다고 돼 있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
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줄 알아 보더니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지 밝히 알아 봤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에 대한 어떤 그 미리 감사기
도를 한 그리고 양식을 주신 것과 주실 것에 대한 감사기도 그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3절 44절까지

4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 이 부분을 안 읽으시네요) 눈을 들어 우러
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목적이 뭐죠?

목적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 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 그리고 주변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보내신 보내진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일부러 기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잠시 후에 그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한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둘러싼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8절 18장 1절까지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긴 기도를 하신 내용이 실제 기록이 돼 있죠.

다른 어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기도의 내용도 간단하게 돼 있고 그렇지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8장 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겻세마네 동산 앞에 동산에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만찬을 하시는 그 장소에서 제자들 앞에서 특별히 기도하신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1, 1절 중반 부분부터 쪽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겻세마네 동산으로 가신거예요.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긴 기도를 제자들 앞에서 하신 이유가 뭐며 또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 좀 특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라는 위치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보자로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좀 간단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7장 2절부터 10절까지는 즉 영생 즉 믿음을 위해서

그다음에 십 여 아니 11절 12절은 그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그 영생과 믿음을 보전(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17장 13절은 내적인 기쁨을 위해서

그 다음에 17장 14절 16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위험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5절은 구원받은 사람을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18절 19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은 말씀으로 거룩해 지고 거룩하게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24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위해서

25절 26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앞으로도 알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특별히 이걸 길게 다 기록을 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똑같은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위로와 기쁨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기도를 다 자세하게 언급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겿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3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겿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하신 기도인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한 기도를 하신거죠.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죄가 처리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한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뭘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죠?

이 무릎을 꿇고 마지막 순종을 위해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무릎을 꿇었다는 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걸 일깨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세 번이나 반복 돼 있죠.

예수님은 그전에도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십자가에 죽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는 그것이 주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36:34~50 뭐라고 하는지 안들려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그다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니까 땀이요 이제 몸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는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너무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으면 모세혈관이 터지면 그 모세혈관의 피가요 땀방울 속에 섞여 나올 수 있대요

예수님은 그럴 정도로 간절히 정말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누가복음 22장에 이 예수님의 겿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신약성경에 조금 더 부연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5장이죠.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이 기도가 순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부활시키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그 말이죠

여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특별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 이게 아마 갓 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두고 하신 말씀일겁니다.

그분은 간구했어요.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간구죠.

그리고 소원을 올렸다.

아버지의 뜻대로 참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을 보게 되기를 그 소원이죠 주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아버지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해서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했죠.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다는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을 내서 바쁜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또 제자들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40:12 것을? 잘 못알아 듣겠어요) 능력에 대한 어

떤 감사기도

그리고 음식을 주신 것과 주실 것에 대한 어떤 기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순종을 위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기도하신 그 내용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자세히 보여 주셨죠.

또 자세히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또 자세한 내용과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요 가르쳐 주신거예요

그 내용은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찌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특별히 세 단락으로 끊어볼 수 있죠.

1절부터 4절은 주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6장의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죠?

일컬어지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거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강청하는 기도 그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죠?

강청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특별히 들어준다는 내용을 얘기하신거고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눠준 프린트 내용 4페이지의 중간부분입니다.

여기 1절부터 4절은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내용인데 요거 구체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에 있죠?

요거보다 더 정확한 문장이 6,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넘겨보죠.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5절에서 14, 15절까지 찾을 수 있고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기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5절부터 18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기도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먼저 언급하신 것이 5절부터 8절까지죠.

역시 여기 기도를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을 예수님이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두가지죠?

5절부터 8절까지.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
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같이 읽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일려고 하는거예요? 아니면은 기도
에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하는거예요?

질문하나마나죠?

그런데 그 질문하나마나한 그것을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깊이 생각 안 했다
는거예요 그렇지요?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 기도 잘 한다는 소리
를 듣기 원했어요

그래서 큰 거리에서나 회당에서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했
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기도 잘 한다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중요한 것은 기도를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는 당연하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못해요

왜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드리라고 그랬냐?

골방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맞죠?

골방에서 드리면 사람 신경 안 쓰죠?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할 수 있어요. 맞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마음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어봅시다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맞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디서 기도하기를 좋아할까요?

개인적으로? 맞죠?

그래서 당연하지만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뭐 특별한 골방을 언급 안 해도 하나님과 1:1로 마주하는 거기가 골방입니다.

그렇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또 한 가지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말 자체는 물론 얼른 보면 말을 많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문제 삼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제했던 기도를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기도를 내일 또 하고 그리고 기도했다가 또 그 기도가 조금이라도 또 간절히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또 구체적으로 더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말이요 쓸데없이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말을 많이 하나?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요.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해요

그거는 바른 게 아니죠

바로 유대 종교가들이 그런겁니다.

사람들 앞에 길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 없는 기도가 문제다 그말인겁니다

목적 없는 기도.

그런데 정말 길게 기도를 하는 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요 길게 기도가 돼요

그런데 그런데 길게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기 보다는 목적 없이 기도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 없이 기도하는

생각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문제 삼은거다 아시겠죠?

이걸 또 잘못 가르쳐서 말을 많이 하는 걸 문제 삼는다고 생각하면 그럼 기도를 짚막하게 해야 되나?

그렇게 잘 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앞서서 역사 속에서 기도했던 분은 2시간도 3시간도 했다는데 그럼 그들이 잘못됐냐?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쓸데없이 어떤 그 주님께 간절한 마음 없이 의미 없이 종얼대는 쉽게 말하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연극장에서요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크신 여신 아덴이여 라고 두 시간 동안 소리 질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우상에게 기도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두 시간 동안 소리 질렀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니까 어떤 그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쓸데없이 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주님께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꼭 이미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적어 봤으니깐요 한 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5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9절에는 밤에 찾아온 벗의 강청함을 들어준 비유를 통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거죠.

그래서 밤중에 벗이 찾아왔는데 떡 한 덩이만 좀 빌리자 그랬을 때 너무 간절히 강청하는 그것 이미 침소에 들었다고 안 해 주겠냐?

벗됨을 인해서는 안줄 수 있다 그러나 강청함을 인해서는 들어줄거다

그 강청하면 들어준다는 그 내용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가서 강청하는 과부의 모습도 같은 내용이죠

그것도 강청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에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않겠느냐?

그렇게 마무리 지었죠

성령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성령은 언제 오세요?

구원 받을 때 오십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되고 동시에 그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주시냐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지않아요 그쵸?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에 대한 약속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은 구원 안 받은 분은 구원받도록 도와 주실거고

구원 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을 인해서 신령한 것들을 더 깨닫도록 또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본을 보이셨고 기도를 또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땅히 주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에게 잘 적절한 수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서 특별히 이제 집에서 아버지 아들 관계를 잘 이렇게 비유해서 적절한 나이 또래에 아마 그 가르쳐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도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바른 삶을 살면서 고하면 생각지 않았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부모가 주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크고 신령한 것들도 주실 것에 대한 약속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4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인지 쪽 적어놔고요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7페이지에 해서 6가지를 쪽 적어놔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참고로 참고로 적어놔었으니까 참고로 교사들께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연약한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 삶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시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므로 응답받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종을 주께 맡기니 주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좋은 교사로서 본을 보이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